



순창군은 본격적인 폭염철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7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 재난자동음성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해 277개 마을과 관광지 등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을 하루 2차례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폭염극복 대책 추진

순창군, 마을·관광지 등 야외 활동 자제 방송·주민 문자 발송

전북지역 전역에 33도에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이 다양한 폭염극복 대책을 추진해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무더위 극복을 돕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폭염철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7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 재난자동음성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해 277개 마을과 관광지 등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을 하루 2차례 진행하고 있다.

또 방송을 듣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1,500명 주민들에게 폭염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자 정보도 발송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490

세대대에 대해 읍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5명을 활용해 1일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통해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인 U-care 시스템을 통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방문해 안전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또 관내 경로당 등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한낮에는 주민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군은 이미 관내 무더위 쉼터에 대한 냉방기 작동여부 등 점검도 마친 상태다.

군이 운영중인 무더위 쉼터는 188개 소다.

무더위 쉼터에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을 비치해 주민들이 활용하게 했다. 또 전북도와 함께 무더위 행동요령이 적힌 부채 2,500여개, 넥클러 2,500여개를 8월초 안에는 배부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별도 상황실도 운영한다. 군에 2명 읍면에서 1명이 근무하며 휴일에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혹은 모를 축산농가의 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지역에 연일 33도에서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군은 고령자 인구가 많은 만큼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 모든 주민이 안전한 폭염 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북남원IC 연결도로(북남원IC 교차로 ~ 남원역 교차로)가 25일 전면 개통했다.

남원시 북남원IC 연결도로 전면 개통

남원시, 4차선 도로 신설 남원시내까지 거리 2.1km 단축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북남원IC 연결도로(북남원IC 교차로 ~ 남원역 교차로)가 25일 전면 개통하였다.

북남원 IC 연결도로는 지난 2011년 11월 착공되어 총 241억원(국비 175억원, 도비 56억원, 시비 56억원, 특별교부세 56억원)이 투입돼 4차선 도로로 신설됐다.

북남원IC 연결도로는 당초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준공 기한보다 5개월여를 단축했다.

북남원IC 연결도로 개통으로 북남원IC에서 남원시내까지의 접근 거리를 2.1km 단축시켰다.

또, 5분여 만에 시내권에 접근할 수 있어 시민들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기존 오수 IC를 통해 이뤄지던 남원 진입을 북남원 IC로의 진입으로 유도하게 됨으로써, 시간과 물류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남원시는 당초 평면 교차로로 예정되어 있던 북남원IC 인구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바꾸어 달리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인구 교차로를 변경했다.

금강마을 앞 교차로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전면 개통 이후에도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홍보 활동·교육 진행

귀농홍보관서 내일까지

순창군이 서울라베동에 위치한 귀농홍보관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북북귀농귀촌 홍보 활동을 진행해 홍보관을 찾은 예비귀농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군은 이번 홍보 활동에 순창군 귀농

귀촌협회 등 선배 귀농인이 대거 참여해 순창군의 귀농정책, 백향과, 꾸지령, 감초 등 성공사례 발표와 지역 대표 농특산물 전시, 순창군 10대 작물 재배동향, 지역민과 갈등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살아있는 홍보 활동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상담인원 95명과 120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예비귀농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순창 귀농귀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650-5115, 650-5174로 문의하거나, 순창군귀농귀촌홈페이지 (<http://gosunchang.com>), 또는전국귀농운동본부 (www.refarm.org)와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063-653-542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타요버스 투어로 지역 바로 알기

고창알기 타요버스 10월까지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색적인 '고창알기 타요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타요버스'는 고창군 특수시책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역사문화유적을 바로 알기 함으로써 애郷심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25개 어린이집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타요버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여 아동

들은 관내 역사문화유적인 고창읍성, 고인돌유적지, 선운사, 갯벌체험, 청보리밭 등 방문하게 된다.

타요버스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이색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 체험 그리고 방문 등 3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해 진행한다.

고창군에서는 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적지 방문 전 교육을 담당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니여행 텐서기 만들기, 보리빵만들기 등 역사문화유적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방문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 '절실'

순창군 박선숙씨 행정부장관 표창

순창군 인계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선숙 주무관(사진)이 25일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서 당선돼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식은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장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규제업무 관계자와 수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는 전라북도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결과로 전라북도 심의 및 행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계면 박선숙 주무관은 헌혈에 참

여해주는 봉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헌혈 참여자의 잠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증 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전산 기록으로 의료비를 감면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순창군과 익산시가 각각 1건씩 선정,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선숙 주무관은 "생활속에서 규제 개혁 대상을 생각하던 중 헌혈 참가자들이 헌혈증을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착안한 아이디어가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속의 규제 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목표달리다

임실군 신덕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임실군 신덕면(면장 이환기)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행복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한 독거노인 87가구에 면사무소 담당자가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물품을 구입한 후 군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의 재능기부를 받아 방충망 및 전등교체, 가스차단기, 환풍기 설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 어르신은 "폭염으로 혼자 답답하게 집에서 지내기가 힘들었다."며, "일상생활에 불편한 일들을 해결해 줘 생활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환기 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행복보장협의체와 복지이장단을 비롯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많은 지역민의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고창군, 과학캠프 수강생 모집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이 '하계과학캠프'를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실험·실습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하계과학캠프'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연계해 오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고창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

올해 8번째로 열리는 하계과학캠프는 '이러기가 있는 과학실험'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어린이 과학수사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조상들의 지혜 등 3개 분야의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대 자연대 학생들이 직접 실험 실습을 지도하는 이번 과학캠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달 3일까지 군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에 방문 접수 또는 팩스(063-560-2339)로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여러 과학실험을 통해서 원리를 탐색하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생들이 과학자로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산모이동진료 '호응'

임실군은 산부인과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모이동진료'를 7월부터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가 주관하고 임실군과 순창군이 참여하는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동진료는 교통접근성이 불편한 산모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산 시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진료'는 오는 11월까지 남원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진료장비를 갖춰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군 보건의를 방문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남원 의료원에 산소아과 병동을 설치하고 산모감염병수용, 다문화가족 및 빈곤 취약계층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임실, 순창지역 산모 임신시 진료비 감면혜택)제공, 산후가정간호 서비스, 다문화 여성을 위한 통역서비스, 응급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할지역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부반, 감동물결 감성출산을 위한 출산반, 초보맘 육아교실 등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출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의료원 지역보건팀(☎640-3352)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대추 상품종 재배 시범

과실이 크며 당도 높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포도 폐원 과원을 신소득 작목으로 개발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대추 상품종(태상황대추) 재배 시범 재배하여 포도 폐원 농업인의 관심이 매우 높다.

금지면 서재 마을에서 김숙희 등 5농가가 태상황대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수량이 1년차부터 3년차까지 다양하고 생육이 매우 좋다.

태상황대추는 과실이 크며(50~80g), 당도가 높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매우 높으며 착과 후 110일경에 성숙이 되므로 빠르면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수확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대추 과실 가운데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당질로 생과는 과중의 24~31%, 건과는 58~65% 정도가 단당류와 다당류로 되어 있어서 일반 과중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특히 비타민 A, B, C 등 영양소가 다른 과일에 비하여 매우 뛰어나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고 농가에게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로 인정을 받았



다.

또한 대추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식과 다과에 널리 활용되어온 식품이면서 항알러지, 항암, 간보호작용 등이 약리효과를 가진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 중의 하나이다.

한편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담당은 "FTA에 발효에 따른 포도, 블루베리 폐원하는 농업인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추를 농업인에게 소득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으로 육성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